

타 지역 출마 전북출신 당선인 총 21명

향후 전북 정치 위상 높아지나?

민주 안규백 · 이정현 · 진성준 · 진선미 등

서울 · 인천 · 경기 등 중요 지역서 당선

국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조배숙 유일

4·10 총선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10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가운데 타 지역에 출마한 전북출신 당선인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결과 전북출신 당선인은 총 21명이었다.

먼저 서울 한강벨트로 불리는 곳에는 총 5명의 전북출신이 당선됐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5선 고지를 밟은 안규백(62·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또 서울 광진구 갑 이정현(52·민주당) 당선인은 전주, 서울 강북구를 한민수(55·민주

당) 당선인은 익산, 서울 강서구를 진성준(56·민주당) 당선인은 전주, 울강동갑 진선미(56·민주당) 당선인은 순창 출신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 계양구 갑에 유동수(62·민주당) 당선인은 부안, 인천 서구를 이용우(49·민주당) 당선인은 완주, 인천 서구병 모경종(34·민주당) 당선인은 남원 출신이다.

경기지역에는 정을 출신인 경기 광명시 갑의 임오경(52·민주당), 전주 출신 경기 고양시를 한준호(50·민주당) 당선인, 부안 출신 경기 고양시 출의 이기현(55·민주당), 전주 출

신 경기 고양시정 김영환(55·민주당), 순창출신 경기 군포시 이학영(71·민주당), 군산출신 경기 광주시 갑 소병훈(69·민주당), 고창 출신 경기 광주시을 안태준(54·민주당) 등이다.

비례대표 당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연합의 위성락(69) 당선인이 전주출신이며, 같은당 오세희(68)·한창민(50)·정을호 당선인은 각각 부안, 진안, 고창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서는 강경숙(56) 당선인이 남원출신이며, 여당인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익산출신인 조배숙(67) 당선인이 5선 고지를 밟았다.

전북 10석 외에도 전북 출신들의 당선인들이 타 지역에서 대거 배출되면서 향후 전북의 정치 위상은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선인들이 아원에 속해 있어 조배숙 당선인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전북의 주요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여야 협치 통로를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의 주요 여야 협치 통로는 이번에 전주출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정은찬 의원이 도맡았다. 일당독주 체계가 이뤄진 전북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배숙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협치를 담당할 인물도 배출해야하는 역할도 부여받았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당선된 출향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현 정부와의 대화 통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역할을 이젠 조배숙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

“새만금 SOC 정상화 궤도 사업재개 신속 대응하자”

김관영 도지사, “민생문제 해결 심기일전” 강조
봄철 미세먼지·황사·산불 등 선제대응도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SOC 정상화를 기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5월 정부 부처 예산안 편성에 앞서 활발한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주문했다.

아울러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황사, 산불 예방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미세먼지·황사상황을 모니터링해 도민께 적시에 알려드리고, 산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대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SOC 정상화 상황을 잘 점검해서 정상화를 기점으로 공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와도 지속 소통하여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미 2월 말 새만금 신항만, 내부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정상화됐고, 여타 사업들도 정상화 궤도에 오른 상황을 도민께 정확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총선에서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 선거를 좌우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면서, “선거를 통해 높아진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도정과도 연결되는 만큼 좀 더 소통하고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19일까지 5일간 의정 돌입

정종복·임종명 의원 선서

제1회 추경안 심의 앞두고

조례·동의안 등 안건 처리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월에 예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접수된 의안 총 32건을 심사한다.

먼저, 15일 개회식에서는 지난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시 제3선거구 정종복 의원과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의 의원선서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제408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남북하나재단의 하나센터 지역 운영 추진 철학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408회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제86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봄호(제86호)’를 발간했다.

제86호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06회와 제40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알리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사진 뉴스에 실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자세히 정리했다. 의원들은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영 문제와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연계 방안,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관련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점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전북도립국악원 행정운영 개선과 인구감소 대책의 실효성 높이는 ‘인구변화인식 예산제’ 도입,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전면 해산, 사회적 취약계층의 간병비 지원, 소외된 입업 분야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국민 신임 얻는 데 실패... 시행착오 반성”

새로운미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낙연 공동대표 “민주주의 재건 노력 계속”

새로운미래가 지난 12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정당 이후 선거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미래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 공동대표는 “저를 포함한 새로운미래는 계획했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새미래 앞에 놓인 과제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의 창당 이후 선거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정치 양극화, 도덕성 붕괴 등으로 국가 생존과 국민 생활이 더 위태로워질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런 불행에 막고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많은 불만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더 치열해진 양강 대결 구도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선명한 이런 응징의 의지와 응징의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는 또다시 새

로운 시작에 앞두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아세우고 국정기조를 바로잡는 일에 저희는 가장 그 선두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의원은 “우리 많은 동지들이 분투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대표로 축하받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원내에서 그 한 석이지만 씨앗이 돼서 더 큰 나무 더 큰 숲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을에서 낙선한 실촌 의원은 “지독한 패배 앞에서 할 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서겠다”고 짝막한 소회를 밝혔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해단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새미래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는 질문에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 정치에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저희가 왜 이런 길을, 이런 도전을 시작했는지, 추구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왜 국민들에게 진 말 안했는지, 여기에 대한 냉철한 성찰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이어 “그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또 독자적으로 새로운미래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들이 그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

영산글로벌넷 기업 애로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안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안주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영산글로벌넷)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영산글로벌넷 관계자는 “완주테크노밸리2로 일대는 중앙선 철선이 이뤄지지 않고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다”며, “대형 트레일러나 화물차 등이 우회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중앙선 철선과 중앙분리화단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현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분리화단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유턴을 위해 멀리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총선 전북 당선인들의 당선 소감

“지역민을 위한 입법 활동 매진”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 박희승 당선인

존경하는 남원·장수·임실·순창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당선자입니다.

먼저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세 분의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민생 파란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뜻이라 생각합니다.

풍전동화 같은 경제, 민생 상황 앞에, 당선의 기쁨과 영광은 주민 여러분께 돌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박희승은 오랜 법조인 경력을 십



분 발휘하여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능한 현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앞장

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장수·임실·순창 주민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소통하며 준비했던 만큼 더 가까이에서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가까이 견마지로(大馬之勞)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무, 3대특별시로 발전”

완주진안무주

민주 안호영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진안·무주 주민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입니다.

저 안호영을 믿고 더 큰 일하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4월 10일은 무능·무책임·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주는 정치를 하



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 안호영,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완주·진안·무주

발전을 위해 드렸던 약속은 3선의 힘으로, 3배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진안·무주를 3대특별시로 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과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안호영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위한 긴 여정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완주·진안·무주 국민과 전북 도민,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